

##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권 경 남\*\* · 최 은 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사의 조기이직과 간호사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간호업무가 복잡해지고 간호사에게 요구하는 대상자의 요구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본인이 간호직업에 대한 자기확신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자기확신과 관련이 있는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적응 및 적합한 결정을 위한 수단이 되므로 (Kim, 2007) 직업선택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 간호학생은 이미 직업을 선택하고 입학한 학생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이나 진로정체감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Cho & Lee, 2006). 간호과 교수도 단지 간호학생에게 관련 기관이나 병원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비교적 취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호학생이 졸업 후 취업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조기 이직하는 수가 많아지고, 임상에서는 간호사 수가 부족함에 따라 원인파악을 위한 수단으로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Cho와 Lee(2006)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으면 신규간호사로서 간호업무를 하려고 할 때 높은 이직 의도를 갖는다고 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부족 현상과 함께 신규간호사의 직장 조기 이탈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뚜렷하지 못한 진로정체감은 부적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호학생의 적응을 증진시키고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정체감을 확인해보는 것이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신규간호사의 직장 조기 이탈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진로정체감의 정도만을 확인했을 뿐(Kwon, 2002; Cho & Lee, 2006)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이해정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로정체감과 관련성이 있는 개념으로 많이 연구된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의사결정유형 등이 있었다(Ahn & Han, 2002; Cho, 2006; Kim, 2007; Park, 2005; Park & Woo, 2008; Yoon;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상자가 간호학생이 아니었으며 진로정체감의 영향요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영남이공대학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영남이공대학 간호과 교수

\*\*\* 영남이공대학 간호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eh5472@ync.ac.kr)

투고일: 2009년 5월 18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1일

인을 확인하지는 못했기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정체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학생 교육에 중요한 부분이며 취업 후 본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임상 실습경험은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Choi, 2009) 사료되며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대학입학 만족도가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Kim, 2002) 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3. 용어 정의

- 1) 진로정체감: 간호학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을 의미하며 Kwon(2002)이 변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선택과정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Lee(2001)가 변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3) 진로결정 수준: 구체적으로 대학 졸업 이후와 관련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확신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Yoon(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4) 진로의사결정유형: 개인이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Yoon(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5) 진로준비행동: 진로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1997)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

수를 의미한다.

- 6) 임상수행능력: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Choi(2005)가 수정, 보완한 점수를 의미한다.
- 7) 실습 만족도와 대학입학 만족도: 임상실습을 하고 난 뒤와 대학입학 후에 경험하는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2학년과 3학년 간호학생 중 연구목적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315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 부적절한 응답을 한 대상자 2명을 제외한 313명(99.4%)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진로정체감

Holland Daiger와 Power(1980)이 개발한 것을 Kim(1997)이 변안하고 Kwon(2002)가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도구이다. 총 14문항,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채점은 역환산을 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그렇다 1점, 다소 그런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Kim(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89이었으며, Kwon(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82이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모형에 기초한 것으로 Lee(2001)이 번안한 도구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총 25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되어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총점이 높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이은진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88이었다.

3) 진로결정 수준

Osipow, Carney와 Barack(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DS: Career Decision Scale)를 Koh(1992)가 한국 문화에 접목하여 Yoon(2007)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수준은 18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결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역문항으로 계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Koh(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91이었다.

4)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의사결정은 Harren(1984)가 개발한 의사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Koh(1992)가 번역한 것을 Yoon(2007)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의사결정은 3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유형은 상황에 대한 정보의 실제적, 논리적 그리고 신중한 평가에 의한 진로의사결정 정도를 의미한다. 직관적 유형은 즉흥적인 느낌과 감정적인 자아인식에 의한 진로의사결정 정도를 의미하며, 의존적 유형은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의 능력이나 적극성이 결여된 입장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의사결정 정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의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oh(1992)의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Cronbach's  $\alpha$ 가 각각 .87, .86,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82, .79, .84이었다.

5)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1997)이 개발한 것으로 16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Kim(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87이었다.

6)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Lee 등(1990)이 개발한 것을 Choi(2005)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가지 영역을 측정하며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 약간 못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잘한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Lee 등(1990)이 개발할 당시는 Cronbach's  $\alpha$ 가 .96이었으며 Choi(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95이었다.

7) 실습 만족도, 대학입학 만족도

실습 만족도와 대학입학 만족도는 3점 척도로된 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이며 매우 만족한다 3점, 그저 그렇다 2점, 불만족스럽다 1점으로 측정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 까지였다. 본 연구자가 해당 간호과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학생에게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한 후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관련요인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6.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88.5%가 여학생이었으며, 연령은 21-25세가 74.4%를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97.1%가 미혼이었으며 재수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학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13)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
Sex	Male	36	11.5
	Female	277	88.5
Age	≤20	40	12.8
	21 - 25	233	74.4
	26 ≤	40	12.8
Marriage	Yes	9	2.9
	No	304	97.1
Repeat entrance examination	Yes	26	8.3
	No	287	91.7
Residential type	House with family	233	74.4
	Lodging	63	20.2
	The others	17	5.4
Satisfaction of college entrance	Very satisfaction	67	21.4
	Medium	222	70.9
	Unsatisfaction	24	7.7
Religion	Buddhist	50	16.0
	Christian	65	20.8
	Catholic	32	10.2
	None	166	53.0
Grade	Sophomore	97	31.0
	Junior	216	69.0
Group activity	Yes	100	31.9
	No	213	68.1
Working place to want	Hospital	239	76.3
	Public service personnel	34	10.9
	Industrial nurse	11	3.5
	Abroad nurse	15	4.8
	The others	14	4.5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action	48	15.3
	Medium	221	70.6
	Unsatisfaction	44	14.1
Charge of clinical practice	Professor	80	25.6
	Head nurse	80	25.6
	Professor and head nurse	139	44.3
	The others	14	4.5

를 다니는 학생이 74.4%를 차지하였으며, 대학 만족도는 92.3%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전체의 20.8%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69.0%를 차지하였다. 동아리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31.9%를 차지하였으며 취업을 원하는 곳으로는 종합병원이 전체의 76.3%를 차지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85.9%가 만족했으며, 임상실습에 대한 책임은 전임교수와 수간호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군이 44.3%, 전임교수만이 25.6%, 수간호사만이 25.6%를 차지하였다(Table 1).

## 2. 진로정체감 및 관련요인

진로정체감은 평균 31.79±5.78이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68.41±8.36이었다. 진로결정수준은 평균 50.46±8.93이었으며, 진로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의사결정은 평균 24.95±3.16, 직관적 의사결정은 24.68±3.93, 의존적 의사결정은 24.68±3.93이었다.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2.03±7.80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145.26±20.57, 실습 만족도는 평균 1.99±.54, 대학입학 만족도는 1.86±.52이었다(Table 2).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대상자의 연령( $F=5.505, p=.004$ ), 대학에 대한 만족도( $F=14.215, p<.001$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F=4.301, p=.014$ )(Table 3).

Table 2. Career Identity Relating Factors (n=313)

Classification	M±SD
Career identity	31.79± 5.78
Career self-efficacy	68.41± 8.36
Career relating data gathering	13.76± 1.91
Setting a objective	13.76± 2.14
Making a plan	13.50± 2.21
Solving the problem	12.88± 2.26
Self evaluation	14.50± 2.03
Career decision level	50.46± 8.93
Type of career decision	
Logical type	24.95± 3.16
Intuitive type	24.68± 3.93
Subordinate type	23.79± 4.7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2.03± 7.80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145.26±20.57
Nursing process	34.80± 5.75
Nursing skill	34.27± 6.34
Education/cooperation	25.81± 4.35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0.21± 3.25
Professional develop	30.04± 4.69

Table 3. Career Identit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13)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SD	t or F	p
Sex	Male	30.11± 6.57	-1.938	.054
	Female	32.13± 5.80		
Age	≤20	32.53± 6.18	5.505	.004
	21 - 25	32.28± 5.90		
	26≤	29.05± 5.05		
Marriage	Yes	26.89± 4.23	-2.602	.010
	No	32.05± 5.90		
Repeat entrance examination	Yes	30.81± 6.13	-.984	.326
	No	32.00± 5.90		
Residential type	House with family	32.14± 5.89	1.686	.093
	Lodging	30.73± 5.90		

Table 3. Career Identit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313)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SD	t or F	p
Satisfaction of college entrance	Very satisfaction	155.49±25.18	14.215	<.001
	Medium	143.22±17.79		
	Unsatisfaction	133.88±19.40		
Religion	Buddhist	145.60±18.99	.620	.603
	Christian	147.38±21.51		
	Catholic	147.06±24.38		
	None	143.73±19.85		
Grade	Sophomore	32.27± 5.72	.735	.463
	Junior	31.74± 6.01		
Group activity	Yes	32.18± 5.51	.571	.568
	No	31.78± 6.11		
Working place to want	Hospital	144.18±19.15	.805	.522
	Public service personnel	149.21±22.30		
	Industrial nurse	142.27±20.35		
	Abroad nurse	149.40±34.58		
	The others	149.07±20.72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action	153.04±24.63	4.301	.014
	Medium	143.68±19.68		
	Unsatisfaction	143.77±18.18		
Charge of clinical practice	Professor	148.10±20.85	1.155	.331
	Head nurse	145.51±21.89		
	Professor and head nurse	155.57±16.90		
	The others	142.96±19.86		

Table 4. Career Identity Affecting Factors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Adj R <sup>2</sup>	F	p
Constant	56.405	23.98		23.524	.000			
Career decision level	-.357	.027	-.544	-13.129	.000			
Career self-efficacy	-.173	.029	-.247	-5.991	.000	.641	137.729	<.00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385	.390	.129	3.556	.000			
Satisfaction of college entrance	1.372	.432	.123	3.174	.002			

#### 4. 진로정체감에 영향 미치는 요인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진로정체감에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544$ ,  $t = -13.129$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실습 만족도와 대학입학 만족도의 영향력이 64.1%로 나타났다( $F = 137.729$ ,  $p < .001$ )(Table 4).

### IV. 논 의

본 연구의 진로정체감 평균은 31.79±5.78로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Cho와 Lee(2006)의 37.38보다 낮으며,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Kwon(2002)의 32.08-34.50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2학년과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68.41±8.36으로 Cho(200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68.94와 유사하였다. 하부영역별로 보면 자기평가가 14.50±2.03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정보수집 13.76±1.91, 목표설정 13.76±2.14, 계획수립 13.50±2.21, 문제해결 12.88±2.26의 순이었다. Cho(200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자기평가가 14.10±2.41로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이 목표설정 14.04±2.62, 문제해결 14.01±2.32, 직업정보수집 13.64±2.48, 계획수립 13.15±2.84로 평균은 비슷하나 순서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50.46±8.93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4)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이 최소 44.08에서 최대 49.20인 것과 비

교했을 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im과 Kim(2007)의 연구에서 계열별 진로결정수준 평균을 확인한 결과 사범계열이 56.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계열이 49.0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진로결정수준이 학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간호학생의 진로수준은 평균이상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이 24.95±3.16로 가장 높았으며 직관적 유형 24.68±3.93, 의존적 유형 23.79±4.77의 순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와 Yang(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대학생은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대체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2.03±7.80이었으며 Cho(2006)의 연구의 41.30±10.18보다 많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은 타과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관계로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기관을 찾는 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전공에 따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145.26±20.57로 Choi(2005)의 136.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부영역별로는 간호과정이 34.80±5.75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기술 34.27±6.34, 전문직 발전 30.04±4.69, 교육/협력관계 25.81±4.35, 대인관계/의사소통 20.21±3.25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Choi(2005)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간호과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발전이 가장 높았으며 대인관계/의사소통, 간호기술, 교육/협력관계의 순으로 차이가 있어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실습만족도는 1.99±.54, 대학입학 만족도는 1.86±.52로 3점 척도 중 중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Kim(2002)과 Cho와 Lee(200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37.729$ ,  $p<.000$ ),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beta=-.544$ ,  $t=-$

13.12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실습 만족도, 대학입학 만족도를 포함하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641로 나타나 64.1%의 설명력이 있었으므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기 위한 간접적인 척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관련요인으로 추출된 변수 중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실습 만족도, 대학입학 만족도를 포함한 설명력이 가장 합리적인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제외한 변수인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진로준비행동, 임상수행능력 등은 진로정체감을 파악할 때에는 부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V. 결 론

간호사의 수급부족과 함께 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간호학생의 취업 후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관련요인으로 추출된 개념을 확인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은 평균 31.79±5.78이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68.41±8.36이었다. 진로결정수준은 평균 50.46±8.93이었으며, 진로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의사결정이 평균 24.95±3.16, 으로 가장 높았다.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2.03±7.80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145.26±20.57, 실습 만족도는 평균 1.99±.54, 대학입학 만족도는 1.86±.52이었다

둘째, 진로정체감 관련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진로정체감에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544$ ,  $t=-13.129$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실습 만족도와 대학입학 만족도의 영향력이 64.1%로 나타났다( $F=137.729$ ,  $p<.000$ ).

이상의 결과로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실습 만족도, 대학입학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References

- Ahn, G. S., & Han, G. H.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 of youth personal traits, sex-role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13(2), 73-102.
- Choi, E. H.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5(1), 5-14.
- Cho, H., & Lee, G. Y. (2006). Self esteem and canc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ub Health Nur*, 20(2), 163-173.
- Cho, M. S. (2006).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late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Choi, M. S.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 CTB/McGraw Hill.
- Hwang, M. H., & Park, H. Y. (2005). Career develop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 vocational educational & training*, 8(2), 157-176.
- Harren, V. H.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Holland, J. L., D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 Ji, Y. K., & Yang, J. K. (2002). An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values clarifica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of college students. *J Career Education Research*, 15(2), 1-21.
- Kim, B. W.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H. S. (2007).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as curriculum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s & career. *J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 35-46.
- Kim, H. S. (2002).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 64-76.
- Koh, H. J. (1992).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J., & Kim, B. W. (2007).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J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 13-25.
- Kwon, Y. H. (2002). *Effect of ready planned self-esteem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f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E. J. (2001).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H.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BTI type of college student. *J Adolescent Welfare*, 6(1), 103-115.



- Lee, W. H., Kim, C. J., Yoo, J. S., Hur, H. K., Kim, K. S., & Lim, S. M. (1990).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J Nurs Sci*, 13, 17-29.
- Osipow, S. H., Carney, G. C., & Barack, A. A. (1976). Social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329-337.
- Park, A. C., & Woo, C. Y. (2008). The relationship among high school students' attachment for their parents and peers depending on gender,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Korean J Educational Psycho*, 22(1), 69-85.
- Park, W. S. (2005).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on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 Career Education Research*, 18(2), 289-304.
- Yoon, Y. R. (2007). *A study on effective career-guidance i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areer subject class and career group counsel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

**Kwon, Kyung-Nam**(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Choi, Eun-Hee**(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Method:** Subjects were 313 nursing students in Daegu. Consent from teachers and students were arbitrarily obtained. Mean, standard deviation, and regression determinations utilized SPSS version 12.0. **Results:** Career identity score of subjects was  $31.79 \pm 5.78$  on basis of 56. Factors identified to be influential to career identity included time of career decision, self-evaluated career performa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ollege admittance.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on career identity was rated as 64.1% that is high value. **Conclusions:** The identified factor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se results and examine widely affecting variables of career identity.

**Key words :** Nursing student, Career identity